

연중 제 22 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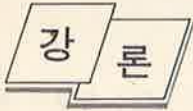
제 1독서 : 집회 3, 17-18, 20, 28-29

제 2독서 : 히브 12, 18-19, 22-24c

복음 : 루가 14, 1, 7-14

# 순정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루가 14, 11)



## 제자리 지키기



이성우 신부 / 화산동 천주교회

판관기에는 제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들려 줄만한 우화가 담긴 대목이 있다.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와서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세우기로 하고 올리브나무에게 청을 드려 보았다. ‘우리 왕이 되어 주게!’ 그러나 올리브나무는 사양했다. ‘내 기름은 모든 신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런데 나 어찌 기름을 내지 않고 자리를 떠나 다른 나무들을 내려다보며 으스스대겠는가.’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게도 같은 청을 드려 보았으나 올리브나무와 흡사한 이유로 사양했다.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청을 드려 보았다. 그러자 가시나무는 ‘그러면 와서 내 그늘 아래 숨어라. 그렇지 않았다가는 이 가시 덩굴이 불을 뿜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오늘 독서 중에서 지혜문학의 걸작 중의 하나인 집회서는 올바르게 사는 마음가짐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훌륭하게 되면 될수록 더욱더 겸손하여라... 오만한 자의 불행에는 약이 없으니, 약의 뿌리가 그에게 깊이 박혀 있는 까닭이다.”

자고로 겸손은 만덕의 근원이요, 교만은 죄악의 뿌리라 했다.

그러나 실제로 겸손을 빙자하기는 쉽지만 참으로 겸손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겸손함이란 우화에 등장하는 올리브나무나 무화과, 포도나무처럼 제 분수를 알고 제자리를 지키며 제 몫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높은 곳만을 바라보며 건다가는 걸려 넘어지기 쉽상이다.

덜고 선 땅, 앉은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하고, 나 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확실히 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겸손의 시작이 아닐까?

‘가난한 사람, 불구자 절름발이, 소경 같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일’은 누구의 일인지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지금 이 사회에는 제자리를 알고 지키는 일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 공소는 하나님이 머문 곳이다

문치상(비오)

전주교구에서 가장 말 안듣는 단체가 어디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신부님들은 서슴없이 전주가톨릭 언론인회라고 답변하리라 믿는다. 그 까닭은 간단하다. 첫째가 잘 모이지를 않는다. 둘째는 말들은 그럴듯한데 실천이 뒤따르지 못한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는 단체다.

우선 변명부터 하자면 전주가톨릭언론인회는 각 신문사에 종사하는 가톨릭신자들의 모임인데 신문마다 원고마감 시간이 틀리다. 조간신문은 낮에 시간이 있고 석간신문은 저녁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거기다 근무처가 모두 전주에 있지 않고 도내 각지에 흩어져 있다. 잘 뒤바뀌긴 하지만 짝수 달에는 평일 점심시간을 통해 만나고, 홀수 달엔 일요일을 택해 전주방송인회와 함께 공소방문 행사를 갖고 있다.

공소방문 첫 행사가 1992년 3월 8일 '되재'에서 있었으니 햇수로 벌써 4년째다. 처음 이 행사를 시작할 때만해도 '공소방문을 통해 자신의 신앙심을 재조명하고, 산간오지 형제 자매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며, 아울러 끈질긴 신앙의 뿌리를 들춰내 보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역시 생각으로 그쳤을 뿐 '하느님이 머문 땅'의 기록은 전혀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쌍암공소' '덕산공소' '백자공소' '동화공소' '덕치공소' '학선공소' '석동공소' '동막공소' 등등 이제는 이름마저도 가물거리게 됐다. 박성팔 신부님도 지겨울만큼 공소방문 행사는 계속됐고 이 행사로 인해 더욱 미운정 고운정이 담뱃 들었다. 이 행사의 뒷풀이는 나눔의 잔치로 이어졌고 나눔의 기쁨은 항상 '신앙과 생활'에 대한 격한 토론이 있었고, 어느 때 삶의 괴로움이나 고민을 토로하는 시간도 가졌다. 별거벗은 모습으로 너무 가깝게, 또는 젊은 언론인들의 맨맛한 만형이었기에 박 신부님의 해외(독일) 파견은 왠지 말 안듣는 언론인들로부터의 도피(?)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신부님이 그토록 원했고 바랬던 「공소의 어제와

오늘」의 기록을 남기지 못한 채 헤어짐이 못내 아쉽고, 섭섭하고, 미안할 뿐이다.

9월은 순교자 성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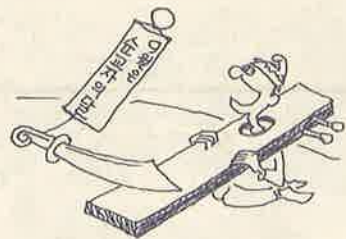
오직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순교자들을 기리는 달이다.

공소는 어떤 곳인가. 순교하신 성인 이상의 거룩한 복음이 이어진 곳이다. 죽음 대신 삶을 선택해서 산간벽촌으로 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 그리고 신앙의 씨앗을 뿌려 풍성한 열매를 거뒀다.

성직자를 보호하고 자급자족하면서 천주교 마을을 형성했다. 어떤 지역은 철저한 비밀보장을 위해 집성촌을 만들어 오늘까지 이어졌다. 그들의 지나온 과거는 너무 고달프고 험난했다. 그래도 그들은 하느님만을 의지하고 흠숭하면서 살았다. 선의 근원인 천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했다. '홀홀 떠나면 그만인 것을, 믿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면 살 수 있는 것을' 그 무엇이 그들을 첩첩산중에 머물게 했을까. 말 잘 안듣는 언론인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가늠키 어려운 일이다. 젊은이들은 대부분 도시로 가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공소의 장래를 걱정한다.

순교자 성월을 맞아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친 선조들의 삶을 되돌아 보고,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공소방문을 통해 참 신앙을 체험하길 권하고 싶다.

### 숲정이 산책



순교정신 본받자.



##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이유옥 (마리 안나, 고2) / 창인동 천주교회

나는 이번 산간학교 때 내 최고의 흥미를 만끽하면서 마지막 하계 수련회를 장식하려 했다. 그러나 내 뜻과는 달리 보도 성지순례로 결정되었다. 오래 걷지 못하는 나에게 도보 성지순례란 또 다른 두려움이었다.

7월 21일 첫째날, 학생 대표로 선서를 마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한 나의 여정은 시작됐다. 버스를 타고 40분간, 천호 성지에 도착하였다. 예전에 다리실 또는 용추내라 불리었던 이곳은 4명의 성인과 무명 순교자들의 묘가 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신앙 선조들이 박해를 피해 주님을 따르기는 그만이었으리라.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이 없는 이곳에서 안식하며 살던 그들에게 이곳은 영원한 배부름이요, 행복,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는 것이었으리라.

천호 성지에서 재를 하나 넘어니 교육 부원의 산수골 인가가 있었다. 산수골은 산골짜기라는 의미로 1868년 여산에서 치명한 박성진의 아내 전 데레사가 살다가 체포되어 순교한 곳이라 했다. 박해를 피해 이곳 산골짜기로 왔는데…….

숙연해지는 발걸음을 옮기니 잿빛 하늘의 터질 것 같은 검은 구름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 주었다.

150여분 동안 걸으면서 바친 묵주 기도, 드디어 터 저버린 구름 사이로 내리는 비와 곁들인 점심 식사, 그리고 약 120분간에 걸친 신앙 선조들을 위한 대침묵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근엄하게 만들었다.



붉은 해가 서산 마루에 걸리울 때쯤 고산 지역 북음의 거점지인 되재에 도착했다. 초대주임인 비에모 신부님께서 한강 이남에서 두 번째로 세운 성당이다. 마을을 앞에 두고, 뒤에 버티고 서 있는 되재 성당은 주님과 하나된 교우들을 연상케 했다. 신앙 선조들의 자취가 곳곳에 배어 있어서 그런지 따뜻한 정감과 향기로운 내음이 하루하루를 씻어 주는 듯했다.

7월 22일 둘째날, 또 하나의 재를 넘어 백석으로 갔다. 차돌배기라 불리기도 하는 이곳은 지역 공소 중에서 가장 많은 교우를 확보했던 지역이라 한다.

점심, 박해 시대에 형성된 교우촌이 산재해 있으며 김영호 순교자의 묘가 있던 수청리, 눈을 감으면 병인 박해에 희미하게 엿볼 수 있는 교우들의 꿈과 의지, 온종일 떨어질 줄 모르는 열기에도 우리는 배낭을 메고 경천 공소로 발길을 옮기면서 '신앙 선조들도 우리들처럼 주님을 찾아 걸어 왔으리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그들의 수난에 동참하고 있는 나를 볼 수 있었다. 경천에서 십자가의 길이 끝나고 이어졌던 캠프파이어! 우리는 십대만이 가질 수 있음을 마음껏 불태웠다.

7월 23일 예수님을 만나요. 마지막날, 모든 것이 분주하게 이뤄졌다. 친구들의 표정을 보니 지친 듯하면서 무언가 얻은 듯했다.

아스팔트 위를 5km가량 걸어 마침내 고산에 도착했다. 박해 시대에 고산 현에 감옥이 있던 근처에서는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희생과 순교가 있었다. 일가족 4명이 천주를 증거하다 불에 타 죽은 일도 그 중 하나라 한다. 가슴이 시려 왔다.

점심을 먹고 우리가 탄 버스는 최종 종착지를 향해 달렸다. 창문에 비춰진 아름다운 산과 들, 길고도 짧은 자연과의 조화, 그 속에서 엿보았던 신앙 선조들의 절대자, 그들은 희망이 있었으리라. 절망과 어둠이 그들을 엄습해 왔어도 그들과 함께 걸으신 절대자, 그분은 눈부신 태양이었으리라.

흥미 위주의 내 계획에는 차질이 있었지만 좋은 땀으로 그것보다도 더 값진 것을 얻었다. 푸른 웃음과 푸른 설음이 어우러진 사이로 소생하는 나의 새로운 신앙을 그 옛날 그들이 했던 것처럼…….

특 집

# 조상제사, 신자들의

9월 9일은 한가위 명절이다. 이 날 우리는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면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는 제사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아, 신자들이 평안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가정을 이루지 못한 신자들의 고충은 남다를 것이다. 이에 교회에서 금하는 바와 허용하는 바를 정리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오랜동안 조상제사에 대한 유교 문화권의 절차와 형식은 남다르게 지켜져 왔다. 시대에 따라 부분적으로 융통성 있는 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관습이나 풍습 또는 전통의 범위를 벗어나 절대성을 띠기도 했다. 특히 조선 왕조에서는 그 정도가 지나쳐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조상제사문제로 치명하였으며, 이후 조상제사문제로 야기된 천주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박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로마 교황청의 조상제사문제에 대한 접근은 허용과 금지를 반복하였는데, 교황의 칙서에 따라 1742년부터 1939년까지 전면 금지되었다. 그런데 1939년 12월 8일 '중국 예식에 관한 훈령'을 통해 비록 전면적인 허용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관용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적응주의적인 선교정책을 뒷받침하였다.

이 훈령에 준하여 한국 주교단은 금지예식을 정했는데, 제사에 있어 축과 합문(훈령이 제물을 흠향하도록 잡시 문을 닫는 예식), 장례에 있어 고복(죽은 이의 혼을 다시 불러들이는 예식), 사자밥(죽은 이의 혼을 고이 모시고 저승으로 가라는 뜻으로 밥과 신발을 상에 차려 놓은 것) 및 반합(죽은 이의 입에 쌀, 조가비, 구슬 등을 넣는 예식) 등이다.

결국, 제사의 참된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제사문제는 이교나 미신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근본을 찾고 부모와 조상에게 효도를 다하는 하나의 생활관습



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연관시켜 생각하면 좀더 여유있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 상제례 예식 —

\* 주의 사항

죽은 이의 이름, 세례명, 직위 등을 적은 위패나 지방은 그대로 사용하되 말미에 적은 신위(神位)라는 표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주(祭主)가 위패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분향하고 잔을 받아 미리 준비한 그릇(모사기)에 술을 조금씩 따르는 삼제(三祭), 고인이 음식을 들 수 있게 하는 삽시(插匙: 밥그릇 위에 숟가락을 꽂는 것), 제사 후 위패와 영정을 따로 모시고 음식을 나눠 먹는 음복 등 제사 절차는 유교식으로 봉행한다.

이 과정에서 제사(차례)의 시작을 알리는 성호긋기, 향상(香床)에 향로와 향합, 사진, 촛대와 중앙에 십자가를 모시도록 한다.

\* 준비 사항

• 마음의 준비: 평소 불편하게 지낸 이웃과 기꺼이 화해하기로 다짐하며 고해성사를 통해 마음을 깨끗이 한다.

이 전  
**코아 에스에스 패션**  
 • 로가디스, 이브생로랑, 위크엔드  
 • 버킹검, 아스트라, 빌트모아  
 • 런던포그, 크레센도, 포앤모아  
**정수천(시몬) · 강숙기(지다)**  
 코아백화점 4층  
 ☎86-2884, 80-1404

(주) 한국삼베전북총판  
 최고급 전통수의/Q마크획득원단제품  
 삼베양말/무중예방, 삼베이불  
**이경근(안토니오) 임경란(수산나)**  
 전주 서부 우회도로 천하장사 옆  
 ☎(0652)212-6639, 7046  
 호출기 012-682-6631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대어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841-2496, 855-8653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オルแกน, 관현악기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 지도 담당  
 동서 관동로 다가교 입구  
**김태우(알폰소) · 황진숙(안젤라)**  
 ☎ 88-7717~8

# 상장례 예식

정리 : 박대길(벨라도)

•몸의 준비 :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며칠 전부터는 술을 마시지 취하지 말고, 고기를 먹더라도 탐하지 않는다. 가능하다면 온 가족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 자선을 행한다. 하루 전에는 목욕하고, 제삿날에는 정중한 옷으로 갖추어 입는다.

•상차림 : 하루 전부터 집 안팎을 정돈하고, 제사음식을 차려 놓을 탁자를 손보고 제사에 쓸 그릇은 깨끗이 닦아 놓는다. 제삿상은 집안의 관습에 따라 차린다.

### \* 예식의 순서

•제사 준비가 되어 영전과 위패를 모시면, 제주(祭主)는 제사의 시작을 알리고, 성호를 긋는다.

•참석한 모든이는 두 번 절한다.

•제주가 영정(위패)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분향하고 잔을 받아 미리 준비한 그릇(보사기) 위에 삼제(三祭 : 술을 세 번 조금씩 따르는 것)한 다음 돕는 이에게 주면, 돕는 이는 잔을 올리고 밥그릇 뚜껑을 열어 놓는다. 제주는 두 번 절하고 물러난다. 참석한 모든 이는 차례로 나아가서 잔을 올린다. 그러나 제주 이외에는 삼제는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제주가 조상께 고한다.

“주님의 보살핌으로 오늘 다시 ( )께 제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여 드리는 저희의 사모하는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저희는 언제나 ( )를 (을) 기억하며 이 제사를 올립니다. ( )께서는 저희가 주님의 뜻에 따

라 화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전구하여 주십시오.”

### •제주의 말씀

“사도 바오로는 이사가 예언자를 인용하여 이렇게 전해 줍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로마서 14장 7~9절을 봉독하고, “이 말씀에서 우리 ( )께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계시며, 주님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시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 한 백성입니다”로 맺는다.

•이어서 부부가 나아가 손가락을 밥그릇 위에 놓는다. 제주 이하 참석자는 두 번 절한다. 절한 다음 참석자는 조상과의 통교를 생각하며 잠시 묵상한다.

•(묵상이 끝나면) 국그릇을 거두고 냉수나 송냥을 올린다.

•제주는 참석자 모두와 함께 두 번 절하며 작별 배례를 한다. 제사를 마치면서 조상과 가족, 친척들과의 통교를 더욱 깊게 할 것을 결심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성가를 부르고 마침기도를 한다. (가톨릭 성가 438, 483 등)

•영정과 위패를 따로 모신 다음, 참석자들은 술과 음식을 나눈다. 이 식사는 사랑과 일치의 식사이며 선조와 가족간의 통교를 더욱 깊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선조들을 소개하고 가훈, 가풍 등 선조들의 말씀을 전해 주며, 가정의 현실과 전망을 얘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축제의 기쁨을 이웃, 특히 소외된 형제들에게도 확장되도록 한다.

## 요심이 (1148) 김병오



매일 성서 묵상 잡지  
**야곱의 우물(월간지)**

「야곱의 우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기쁨으로 당신을 초대할 것입니다.

•가격 : 1,000원 •1년구독 : 10,000원  
•연락처 : 성바오로서원 ☎252-3398

---

원평 성당에서 직접 재배한  
**꿀 배**

•가격 : 특 40,000원(10kg)  
          大 35,000원(10kg)  
          中 30,000원(10kg)  
•구입문의 : (0658)43-0880~143-4236

**성바오로 서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터전이 되고자 합니다.  
서적, 카세트테이프, 비디오, 슬라이드, CD 등

중앙성당 옆  
☎ (0652)252-3398

**기아 자동차**

세차 구입, A/S상담, 중고차 상담.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 상 역(요셉)

☎(0652)87-6301~6  
호출기 : 015-685-0312

차량대여 및 임대전문영업개시  
**(유) 국민렌트카**

박 일 천(요한).

신역에서 진안선 중간 럭키아파트 앞  
☎본사 : 242-4442, 242-4717~9  
군산영업소 : (0654) 467-6578~9

**늘 푸른 집**

우리 기은, 우리 환경에 맞는 무공해 세계 사계절 우리 강물 지켜주는 한국소 물비누

천연섬, 샘이랑, 맑은샘  
☎86-2050  
호출 012-682-6543

치질전문치료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75-0550

뿌리를 찾아서 49

# 평화동 성당

— 협력과 사랑으로 뭉친 공동체 —

평화동 성당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급증하는 인구를 감안하여, 이 지역의 복음 선교를 위해 87년 1월 24일 서학동 성당에서 분가하여 초대 박병준(필립보) 신부님이 부임함으로써 본당으로 설정되었다. 이때 신자 수는 약 900여명이었다.

평화동 본당 공동체는 사목회 및 제단체를 조직하고 성전 신축을 위해서 모두 하나가 되었고 이들의 노고로 88년 3월 6일 교황대사님과 박정일 주교님을 모시고 전주 평화동 1가 470-1에 새 성당 기공식을 가졌다. 이들은 성전을 신축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굳게 단결하여 그해 7월 23일 1차 공사를 완공 새 성당으로 이전을 하였다.

본당 소임 수녀로는 88년 3월에 동정 성모회 본원이 설치되어 신자들과 한 마음으로 예비자 인도와 냉담자 회두에 전력을 하며 본당 사목에 협력하고 있다.

이 본당은 신자 수의 증가로 성당이 협소해지자 93년부터 새 성전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헌신을 다해 왔다. 현재 95년 7월에 약 900여명의 새 성전 신축 부지를 마련하였다. 이 성전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제2대 이재후(토마스) 신부님을 비롯하여 신

자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두 손을 걸어 부치고 모든 일에 뛰어 들었다. 이들은 성전 부지도 마련하고 신자들도 하나로 일치 단결하는 좋은 공동체를 이루었다.

본당 공동체는 사목회를 중심으로 13개 관할구역과 83개반으로 편성되었고 5개 공소로 구성되었다. 신심 단체 22개 및 레지오 마리아 뿌레시디움이 30개, 꾸리아 1개로 본당 사목과 선교에 기여하고 있다.

본당 사목으로는 피정, 연수회, 특별 강론을 통한 신자 재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성분과가 중심이된 봉사 활동과 신심 활동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 필수품 등을 전달하고 교도소 사목과 사제 양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당 역사는 짧지만 세 분(오성기, 송영진, 박동진)의 사제를 배출하였다.

성 정문호 바르톨로메오 주보 성인을 모시고 있는 본당 신자들은 굳은 신앙을 바탕으로 새 성전 건립과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고자 활기찬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명상의 자리

## 주님의 뒤를 따라



주 예수여  
우리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당신 없이는 그 누구도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평탄한 길처럼  
우리를 맞아주십시오  
진리가 우리를 확신시키듯  
우리를 안심시켜주십시오.  
당신은 생명이시니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최첨단 부엌가구  
**ENEX 전북종합전시장**

박영근(공사가)  
장정신(젼 마)  
전주시 덕진구청 앞  
☎ 75-0523~4  
FAX (0652)75-0524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전신C-T촬영 · 일반X-선촬영  
골다공증 측정 · 전신초음파촬영  
유방촬영 · 성인병검진 · 자동차좌석검사  
박인숙(아나다시아)  
구 금암분수대 로타리  
☎ 78-1312~3

**양봉 꿀 판매**

· 생산자 : 이화춘, 이순덕(안젤라)  
· 종류 : 로얄제리, 아카시아, 밤, 참화  
· 주문연락처 :  
황병관(필립보) (0653)841-8131  
김덕순(아네스) (0653)856-0244  
박진규(글라라) (0653) 53-6735  
이순덕(안젤라) (0653)858-7835

개원

**승수중 치과의원**

원장 승수중(빈첸시오)  
완산동 직행터미널(앞)  
☎ (0652)84-2875~6

# 교구소식

## ❖ 교구청 휴무

- 때 : 9월 8일~9일
- 장소 : 추석연휴 관계로

## ❖ 추석 소리개재 합동위령미사

- 9월 9일(토) 오전11시30분
- 〈오전11시-합동연도〉

## ❖ 가톨릭 언론인회

- 때 : 9월 4일(월) 오후12시30분
- 장소 : 전북일보

## ❖ 가톨릭 방송인회

- 때 : 9월 4일(월) 오후6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 ❖ 새 사제 연수

- 때 : 9월 7일(목) 오전10시

## ❖ 사회복지 릴레이미사

- 때 : 9월 4일(월) 오전10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 자원봉사자 학교 개강

- 때 : 9월 4일(월) 오후2시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 ❖ 교도소 개학미사 및 추석 합동위령미사

- 때 : 9월 6일(수) 오후2시
- 장소 : 교도소 강당

## ❖ 축 영명

- 4일(성모이세) 이상섭, 송영진 신부님

## ❖ 제2차 전국 가정대회

- 때 : 9월 24일(일) 오전10시
- 장소 : 청주 공군사관학교내 성무관
- 대상 : 모든 신자가족
- 신청 : 각 교구 행가운, M.E
- 신청마감 : 9월 7일까지

## ❖ 푸른군대 피정

- 때 : 9월 7일(목) 오전10시
- 장소 : 덕진 성당

## 성소모임

### ❖ 샬트르 성바로 수녀회

- 때 : 9월 10일(일) 오후2시
- 장소 : 창인동 성당 수녀원
- 문의 : (0653) 842-4132

### ❖ 거룩한 말씀회

- 때 : 9월 10일(일) 오후2시
- 장소 : 서학동 성당 수녀원
- 문의 : (0652) 84-2276

## ❖ 성바로 딸 수도회

- 때 : 9월 3일(일) 오후2시
- 장소 : 성바로 서원
- 문의 : (0652) 252-3398

## ❖ 동정 성모회

- 수시로 성소상담
- 문의 : (0652) 351-1228

## ■ 권해드리는 책 ■

### · 역사의 땅·배움의 땅 배론

배은하 / 4,500원 / 성바로딸

한국 초대교회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신앙을 키워나간 한국의 나자렛, 배론 성지에 관한 귀중한 사료들을 통하여 그 교회사적 중요성을 재조명하여, 신앙 선조들이 보여준 강한 순교정신을 본받고 선교 3세기를 향한 오늘의 우리 자세를 가다듬게 해 준다.

### · 누이여 천국에서 만나자

노순자 / 5,000원 / 성바로

20세의 나이에 4년간의 동정 부부생활을 순교로 마친 유 요한과 이 루갈다의 사랑과 신앙 체험 이야기이다.

##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 생태학적으로 목욕탕을 청소하는 법

현재 시판되고 있는 목욕탕 청소용 세제로는 연마제가 들어 있는 분말의 클린저형, 액상의 락스형, 그리고 뿌려서 닦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스프레이형 세 가지가 있다. 이 세제의 주 성분은 계면활성제이고 각 제품의 특성에 따라 나쁜 화학성분이 첨가된다. 이 화학제품은 화상이나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실내공기와 하수구를 오염시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바다가

나 세면대는 세탁비누로 닦아내고 부엌에 석회 얼룩이 생기기 쉬운 욕조의 손잡이나 수건걸이 등은 식초를 물에 희석하여 천이나 스폰지에 묻혀 닦아내고, 수도꼭지 가장자리같이 때가 잘 빠지지 않는 곳은 식초를 묻힌 천을 하루밤 썬 뒤 후 씻어내면 깨끗해진다. 이때 한가지 주의할 것은 비누와 식초를 같이 사용하면 끈끈한 막이 생기므로 비누로 씻고 물로 헹구낸 후 식초를 사용한다.

## 교회출판물보급사업원 모집

1984년, 103위성인 탄생과 함께 창업된 출판사업입니다. 순교정신으로 문서전교를 하실 신자 초대

· 주부도 가능, 전주·이리지역

〈문의〉 (02)886-4303

성황석주부가서원/천주교문화

## 조립식 건축

### 한국건설

조립식건물, 일반공사  
경량칸막이 콘테이너  
김해 선(레미지오)

☎ (0652) 75-0161

FAX (0652) 71-6301

휴대폰 011-659-8355

## 덕진 삼익피아노

(서정우 특약점)

- 국가공인 1급 A/S 지정점
- 36개월 할부, 중고보상교환
- 서정우·이혜경(글리라)
- 북전주전화국←→법원 중간
- ☎ 253-3232

## 코아 삼익피아노

- 현금가 6개월 무이자 할부판매
- 각종 신용카드 현금가 할부판매
- 일반약기 전품목 할부판매 및 도소매
- 철저한 책임관리 및 사후 서비스
- ☎ 86-1181, 83-5322
- 호출기 015-670-1651

## 조경설계 전문업체

### 수원조경

- 잔디농장 직영, 아파트, 자연석, 주택조경, 묘지공사 전문업체
- 진일탁(요한)
- 조명현(프란체스카)
- ☎ 85-5599, 87-9192
- 호출기 015-681-1199

## 변원구 한의원

변원구(예로니모)

허정자(수산나)

인후동 모래내 다리옆

☎ 252-1783

253-6355-6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범진배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연중 제22주일

- ◎ 법영배(라파엘) 신부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추석 합동 위령미사 예물 접수: 8일까지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2. 추석(한가위) 대축일 미사시간 안내

3. 초등부 교리교사 교체연수: 오늘 윤희환

4. 특별기도 및 성체강복: 7일 저녁미사 후

5. 모임: ①울뜨레아(3일 공식미사 후)  
②성심회, 자모회(6일 어머니미사 후)  
③반희장 모임(7일 전 10시30)  
④장우회(10일 공식미사 후)

6. 금주 청소: 중노4, 5반

차주 청소: 중노6, 8반

□ 지난주 봉헌금: 1,063,260원 □ 교무금: 1,205,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1. 금주 모임: 꾸리아-9월3일(일) 후 2시, 장소-강당  
청년회-9월3일(일) 저녁미사 후, 장소-회합실  
사목회-9월5일(화) 후 8시, 장소-회합실  
자모회-9월7일(목) 레지오회합 후, 장소-회합실
2. 차주 모임: 프란치스코 삼회-9월10일(일) 후 2시, 장소-강당  
성심회-9월13일(수) 전 10시30분, 장소-회합실  
울뜨레아-9월14일(목) 후 7시30분, 장소-회합실
3. 한가위 미사 안내: 9월9일(토) 새벽 6시, 전 10시 미사
4. 축! 모이세 수녀님 영명축일: 9월4일(월)  
\*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5. 첫영성체 대상자 모임  
①교리일시: 9월13일(수)~10월13일(금) 화,수,목,금(오후 4시)  
②대상: 초등부 3학년~6학년  
③교재대금: 1,200원  
④첫날 모임: 9월13일(수) 후 4시(부모님중 한분 꼭 참석바람)  
⑤첫영성체일: 10월14일(오후 4시미사)  
\* 신청은 교재대금과 함께 교리교사나 사무실에 하시기 바람
7. 예비자 교리 안내: 매주 일요일 오후 5:30분, 장소-회합실
8. 청소 안내: 금주-정의의 동정녀, 차주-사랑하을 어머니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영

◎ 9월은 순교자 성월

1. 성체 강복: 7일(목) 저녁미사 후
2. 추석 대축일 미사 시간: 새벽미사 6시, 공식미사 10시 반  
(어린이미사와 저녁미사는 없습니다)
3. 모임: 꾸리아-3일(일) 오후 2시-추석판계로 앞당김  
대건회, 성우회-3일(오늘) 공식미사 후  
사목회-오늘 저녁미사 후  
구역분과회-5일(화) 오전 10시-추석판계로 앞당김  
여성분과회-5일(화) 오전 11시  
울뜨레아-5일(화) 저녁미사 후  
요셉회-10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청년회-10일(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4. M.E 소개 모임: 24일 공식미사중  
금주 전례: 해설-정승훈, 독서-구본창 부부  
봉헌-최정환 가족  
차주 전례: 해설-최육남, 독서-지해룡 부부  
봉헌-조운일 가족  
성당 청소: 의덕의 거울Pr, 다윗의 담Pr.  
□ 지난주 봉헌금: 662,550원 □ 교무금: 1,038,000원  
□ 감사헌금: 500,000원(서봉회) 50,000원(김덕희)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동진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연중 제22주일: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1. 금주: ①제수골라라 형제회(후 1시30분)  
②에덕의 모후(후 3시)  
③요셉회(후 6시)  
④울뜨레아(후 8시)
2. 빼앗다회: 6일(전 11시)
3. 성체강복 및 조배: 7일(전 10시)
4. 성모성심회: 7일(후 3시)
5. 중·고등부 남전주지구 연합 체육대회: 3일(오전 9시)  
장소-전주교대
6. 추석 합동 위령미사 시간: 9일(오전 5시30분, 오전 9시)
7. 감사헌금: 10만원(익명)-감사합니다.
8. 차주: ①자모회(전 10시)  
②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③사목회(후 8시)  
\* 9월은 성지 순례가 많은 순교자 성월이므로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미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주일 헌금: 2,147,55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실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9월은 순교자 성월-순교정신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합니다.

- ◎ 연중 제22주일-주일미사를 꺾이지 맙시다.  
◎ 정성된 기도와 봉헌(주일헌금, 교무금)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1. 모임: ①요셉회, 동정녀들의 모후Cu.-공식미사 후  
②성시간 및 성체강복-7일(목) 저녁미사 후  
③안나회-다음주일
  2. 지속적인 성체조배: 7일(목) 저녁미사 후-금요일 미사전까지
  3. 추석 합동 위령미사: 9일(토) 10시-사무실에 접수하세요.
  4. 감사: ①차량구입 신입-입 아니곤다(20만원) 이소녀(10만원)  
신부님(50만원) 계-80만원  
②차량구입 봉헌-신부님(50만원) 이소녀(10만원) 계-  
60만원
  5. 성당 청소: 금주-모든 성인의 모후Pr.  
차주-성실하신 동정녀Pr.
  6. 금주 전례: 해설-우정숙, 독서①강덕용 ②김금자  
봉헌-한동관 가정  
추석 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한동욱 ②이석남  
봉헌-황옥섭 가정  
차주 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한동욱 ②이순자  
봉헌-한동산 가정  
□ 지난주 봉헌금: 395,450원 □ 교무금: 146,0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강삼근

- ◎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루가 14, 11)  
◎ 견진성사(24일): ①대상-중1부터 견진성사 받지 않은 전신자  
②중·고생 교리-오늘과 10일 후 5시(성당)  
③자세한 사항은 성당 입구 유인물 참고바랍니다.  
◎ 성령 쇄신 강연회: ①기간-11월~16일(월~토) 저녁 7시30분  
②견진성사 대상자는 의무  
③자세한 사항은 성당입구 유인물 참고바랍니다.  
◎ 추석 합동 위령미사 시간(9일): 5:30, 10:30, 어린이특전 후 4  
시, 성인특전 후 7시30분  
◎ 추석 합동 위령미사 예물 접수: 6일까지 사무실-선영들을 위해  
가정마다 정성을 다하여 봉헌합니다.  
1. 사목회 상임위원회: 5일 저녁 8시  
2. 구역 반 회장 연수: 5일 전 10시30분  
3. 성체강복 및 성시간: 7일 저녁미사 후  
4. 남전주지구 중·고 학생 체육대회: 오늘 교대 운동장  
5. 교도소 개항 및 추석 위령미사: 6일 후 1시30분  
6. 가정 방문: 오늘 후 3시-주공APT 501동  
7. 오달 수녀님 피정: 7-16일, 피정기간 동안 많은 기도바람.  
8. 회의: 꾸리아-오늘 후 2:30분. 성지회-오늘 공식미사 후  
부녀회-6일 어머니미사 후. 성체회-10일 공식미사 후  
9. 불우이웃돕기 방문: 7일 전 9시-여성 차량 봉사  
10.축복 미사: 7일 전 11시 주공A 503동801호 박옥엽(방지가) 덕  
11.다슬기 회원 감사합니다: 성전 신축기금 일백만원 봉헌  
□ 지난주 봉헌금: 1,426,850원 □ 교무금: 2,205,000원